

한국사회의 중층신앙과 다종교교육의 가능성*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다종교사회에서 중층신앙을 하는 한국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종교와 신앙을 강조하는 종단 상황과 둘 이상의 종교에 영향을 받는 신앙인의 처지에 주목한다. 한국은 다종교사회이고 한국인은 복수종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종교문화를 살펴보면 다원성이 특징이고 다종교적 층위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교 간의 접촉으로 혼합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다원적 종교문화에서 한국인의 종교체험은 중층적이다. 한국인의 신앙적 중층구조란 이러한 다원적 문화가 지닌 영성적 풍요와 그 창조적 적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이 지닌 신앙적 중층구조는 다원성과 배타성 사이에서 정당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원문화를 승인하고 수용하는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방향의 종교교육을 다종교교육으로 이해하였다. 다종교교육은 종교의 배타성과 종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웃 종교에 대한 열린 자세를 지니도록 안내하는 것이어야 한다. 파울러와 모란에 따르면 진정한 다종교교육은 학습자가 이웃 종교에 관심을 보이는 성인의 단계에서 가능하다.

주제어: 중층신앙, 다원성, 혼합현상, 다종교사회, 다종교교육

* 이 연구는 2019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선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 교수, leejaeil21@hanmail.net

I. 서론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 및 선교가 공존하여 온 다종교사회였다. 근대에 유일신 신앙인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래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토양에서 신종교가 출현하여 한국사회의 다종교지형을 더욱 다채롭게 하였다. 여러 종교가 병존하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인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한국인은 일상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복수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인은 다종교적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별 종단은 신자의 이러한 종교적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부분의 종단은 자기 종교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신도를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상황에서 종교인은 복수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현재 자기가 속한 종단과 그에 따른 신앙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웃 종교에 대한 사유와 신앙적 행위는 숨기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많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신앙을 요구하는 종단 상황과 하나 이상의 종교와 연관된 신앙인의 처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 이상의 종교와 관계를 맺고 신앙하는 것을 중층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층신앙은 충분히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종단 중심으로 중층신앙을 불온시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특히 유일신 종교에서 타종교에 대한 관심이나 접촉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는 제도적 종단에 거리를 두거나 종단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종단의 울타리를 벗어나 살아가는 종교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한국의 종교인구 가운데 많은 숫자가 중층신앙의 경향을 띠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확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한국 다종교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여러 종교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는 종교와 종교현상을 제도권 종단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종교사회인 한국의 중층신앙적 현실을 짚어보고 다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중층신앙의 터전이 되는 한국의 다종교사회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종교의 혼합현상과 중층신앙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한국적 다종교교육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다종교사회와 중층신앙

1. 한국의 다종교사회

세계종교는 이론적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주장하며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확장 과정에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성향을 드러낸다. 이는 교리적 배타주의와 교단적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 배타주의와 이기주의를 지닌 제도적 종교가 교권중심적 공동체로서 종교계에 독선적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경향이 있다.¹⁾ 사람은 낮은 것에 두려워한다. 낮은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과연 고통 받는 타인을 홀대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불안에 흔들리는 빈도도 위기감도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혐오도 뜨겁지 않을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다.²⁾

현대사회는 소통을 강조한다. 종교계에도 종교 간의 대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단에서 진리를 찾았으니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자기 종교에만 머물도록 하라는 개별 종단의 가르침은 여전하다.³⁾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종교 간에 불화를 가져오는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에 기인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설 자리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불·선 삼교가 공존하여 온 다종교사회였다. 삼국시대부터 여러 종교를 포용하는 관점이 나타났다. 신라의 최치원이 유·불·도의 삼교를 포용하는 현묘한 도를 말한 이래 식자층은 여러 방식으로 삼교의 융화를 주장하였다.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은 불교를 배척하기도 하였지만, 대중은 일상의 의례를 유교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인간의 운명과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불교나 도교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한국사회 중층신앙의 역사적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에는 기독교가 전래되어 기존의 삼교와 병존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다수의 신종교가 이웃종교와 접촉하며 발전하였다.⁴⁾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의 단순한 병존을 넘어 종교 간에 서

1) 김용표,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불교적 Cosmopolitanism의 의미」, 『평화와 종교』 6(아산: 한국평화종교학회, 2018), 9-11, 15-25쪽.

2) 이승욱, 〈이승욱의 증상과 정상: 나를 위한 사마리아인〉, 《한겨레》, 2019년 2월 18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2481.html> (2019. 10. 9).

3)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서울: 김영사, 2012), 62-63쪽.

4)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로 영향을 부고 받으며 여러 종교가 서로 만나는 종교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의 종교문화가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의 종교문화는 고유종교와 외래종교의 만남으로 형성되었다. 고유종교와 유·불·선·기의 외래종교가 만나 접변하는 가운데 단원성이 아니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종교문화를 형성한 것이다.⁵⁾ 한국의 종교 문화가 다원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은 다양한 종교전통의 공존과 상호작용을 함축한다. 종교 문화의 다원성이란 “‘종교 문화’가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면서 관찰될 수 있는 층위와 ‘종교 문화’를 다양하게 하고 또 변화하게 하는 요인들이 다수이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상호 작용함으로써 종교 문화 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반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⁶⁾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문화와 문화 및 사회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가 이웃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 종교가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변화하고 서로 섞이기도 한다. 이러한 종교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혼합현상(syncretism)이다.

혼합현상이라는 용어는 여러 종교나 신앙의 융합 또는 둘 이상의 종교가 상호 접촉하여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서양에서 17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 “정체성을 상실한 무분별한 결합”을 지적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점 “종교 간의 만남, 종교와 문화의 만남을 서술하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함축을 담은 학술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융합적 상상력을 증시하는 최근 학계 분위기에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⁷⁾ 종교 간의 만남을 서술하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혼합현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주목하고 수용해야 할 원칙이다.⁸⁾ 어느 종교가 이웃 종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느 종교도 이웃 종교와의 교류와 그에 따른 혼합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에서 혼합은 사실 종교 전통 사이의 교섭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종교사상의 혼합 내지 교섭 관계는 무쾌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복, 구도, 개벽의 삼대 신념 유형은 어느 종교 전통(특히 고전 종교)에나 다 있는 것이다. ‘하나’의 종교 - 그리스도교 또는 이슬람 - 에 익숙한 유럽과는 달리 한국사회는 처음부터 다종교사회이다. 유럽이 단일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사회를 강조한 데 반해, 한국은 여러 종교가 하나의 사회를 형성

5) 정진홍, 「한국의 종교와 한국인」, 『한국문화연구』 1(서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1), 11-12쪽.

6) 김대열, 「종교문화와 그 다원성 - 또 하나의 시각」, 『종교문화비평』 24(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3), 271쪽.

7) 방원일, 「혼합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종교문화의 만남을 서술하기 위하여」, 『종교문화비평』 33(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8), 55-56쪽.

8) 황필호, 『종교변호학·종교학·종교철학』(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 232쪽.

하고 있다. 유럽이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하나의 종교를 필요로 하고 그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관용할 수 없었던 데 반해, 한국은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하나의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종교 간의 만남과 교환이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만남 위에서 삶이 펼쳐졌다.⁹⁾

종교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혼합현상의 본질은 종교의 역동성이다. 다양한 종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혼합현상은 종교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또한 혼합현상에는 종교의 창조성이 담겨있다. 종교가 혼합됨으로써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¹⁰⁾ 그런데 기존 종교의 자리에서 보면 두 종교의 전통이 섞이면 혼란스럽고 종교적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에서 보면 혼합현상은 “하나의 정합적인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실천되는 행위”이다. 그래서 혼합현상은 종교가 지혜를 깨닫고 발전하는 터전이다.¹¹⁾

2. 한국인의 중층신앙

모든 인간의 문화는 누적적이다. 유일신 신앙이 주류였던 서양사회가 특정 종교에 충실한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보았다면, 동양사회는 유·불·선 삼교에 능통한 사람을 이상적 인간인 군자로 보았다. 한국인으로서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은 유교적 심성을 바탕에 지니고 살아간다. 이는 현대 한국인의 종교적 성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1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39%와 천주교인의 36%가 유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개신교인의 34%와 천주교인의 29%가 불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불교인의 34%가 기독교 성향이고 53%가 유교적 성향이다.¹²⁾ 이러한 조사는 한국사회에 하나 이상의 종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인의 종교적 성향을 설명할 때 배타적 의미를 지니는 개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 개종은 서양의 이원론적 개념이다. 순수한 개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은 무종교 상태에서 특정 종교를 선택하거나 종교인으로서 자기 종교를

9) 장정태, 〈한국불교(중산신앙) 종단의 종교 혼합현상: ①종교적 혼합의 의미와 역사〉, 《매일종교신문》, 2018년 11월 21일,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12975 (2019. 10. 9).

10) 방원일, 앞의 글, 59-61쪽.

11) 방원일, 위의 글, 70-72쪽.

1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서울: 한국갤럽, 2015), 54-58쪽.

떠나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과거의 신앙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신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전의 종교경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 이전의 종교경험에 새로운 종교 경험을 추가하게 되므로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종(加宗)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¹³⁾ 가종의 종교적·문화적 발전과정은 3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배척의 단계이다. 이전 정체성의 부정과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경험한다. 둘째는 수용의 단계로서 이전의 정체성(문화적 유산) 재발견과 새 신앙과의 타협이라는 유혹을 받는다. 셋째는 조화의 단계이다. 이전의 정체성과 새 사람으로 탄생되었다는 인식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게 된다.¹⁴⁾

한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종교가 병존해온 사회이다. 여러 종교가 병존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종교와 중층신앙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다종교와 중층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다. “한국이 ... 종교 간의 대화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만 각기 다른 종교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해왔는데, 이는 가종의 덕분이다. 한국인은 무교신앙 위에 유교도덕을 추가하고, 그 위에 불교신앙이나 기독교신앙을 추가한다.¹⁵⁾

이처럼 한국의 종교문화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종교적 체험은 중층적이다. 한국인의 종교체험이 중층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새로운 종교성과 만나도 그것은 기존의 경험에 첨가되는” 것이고 “종교의 선택적 택일이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며 “가능한 것은 선택적 강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층성은 종교의 선택적 강조의 변화를 수반한다.”¹⁶⁾

중층 신앙은 하나의 독특한 신앙 양태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신앙은 하나에의 절대적 봉헌이 아니다 ... 그렇다고 해서 여러 종교를 혼합하여 단일한 새로운 종교성을 지닌 것으로 마련하려는 제종 종합적인 신앙(syncretism)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이른바 절대적 봉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언제나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봉헌은 절대적인 지속을 구조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로 이전하는 일을 배교라고 할 수도 없다. 택일적 선택이 아니라 선택적 강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을 준거로 한 최선의 결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종도 현실적이지 않다. 순교의 사실이 없지 않고, 개종의 경험이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언표가

13) 황필호, 『종교변호학·종교학·종교철학』, 226-229쪽.

14) Yeow Choo Lak, “Christ in Culture”, Yeow Choo Lak, ed. *Theology and Cultures II*, ATESEA (Association of Theology Education in Southeast Asia), 1995, p.5, 위의 책, 230-231쪽에서 재인용.

15) 위의 책, 235-239쪽.

16) 정진홍, 앞의 글, 29쪽.

생겼을 문화권 안에서의 그 개념과 일치하는 개종이나 순교는 일반적이지 않다.¹⁷⁾

신앙의 중층구조란 다원적 실재를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발견적 과정을 따라 나아가는 태도”이고 “어떤 사실이 선택적으로 강조되는” 것 그리고 “다원적 문화가 빚어내는 영성의 풍요와 그 창조적 적용”을 뜻한다. 그런데 중층신앙은 “다원적 종교의식과 제도 종교의 배타적 종교의식 사이에서 부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종교계가 다원문화를 승인하고 다원논리를 수용하여야 우리의 종교문화와 종교인다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¹⁸⁾ 종교계가 다원문화를 승인하고 다원논리를 수용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종교 간의 접촉, 대화, 함께 하기로 안내하는 종교교육에 있다.

이제 한국도 여러 종교가 병존하면서 종교 간에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종교 사이의 접촉과 대화는 참여자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개별 종교의 고유성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종교로의 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다.¹⁹⁾ 서로 다른 종교가 함께함으로써 상대 종교의 실체를 알 수 있고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종교 간의 만남으로 종교혼합이 이루어지므로, 학자들은 종교혼합의 유형, 역사, 주제 등에 초점을 맞춰 종교혼합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동인과 주체를 중심으로 종교혼합을 살펴보면, 인간 주체의 상황에 따라 혼합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혼합을 단순히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²⁰⁾

특히 종교 주체의 해석학적 전유(專有)로 촉발되는 혼합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 문헌의 전유적 독해를 해야 자기와 무관한 대상이 자기 것이 되거나 자기 이해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다. 전유는 종교문헌 독해의 필수 과정이고 해석학적 과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텍스트는 생성되면 저자의 품을 떠나 독자에게 무한히 열려있고 이질적이 되는 소위 텍스트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진다. 이후에 텍스트의 열린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만나 새로운 해석이 이뤄지는데, 이것이 전유이다. 이처럼 텍스트에 대한 주체적 해석으로 의미론적 혁신을 이루면 갱신이나 분파 운동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²¹⁾ 텍스트의 해석을 근본주의적 해석과 자유주의적 해석의 양극으로 나눈다면, 전유는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만남과 대화는 필연적이다. 종교

17) 위의 글, 30-31쪽.

18) 위의 글, 32쪽.

19) 안신, 「세계시민사회 실현을 위한 종교간 대화와 협력」, 『평화와 종교』 6(아산: 한국평화종교학회, 2018), 215-219쪽.

20)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反혼합주의」, 『종교연구』 47(성남: 한국종교학회, 2007), 43-45쪽.

21) 김창환, 「신화 텍스트와 해석의 ‘전유’의 문제」, 『신화와 역사』(서울: 서울대출판부, 2003), 168, 169-170쪽.

인의 삶은 종교 간의 만남 이전에 자신에게 묻고 종교 내 대화에 참여하며 종교 간의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자기를 여는 모험을 감행하며 자기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새로운 것을 사유하게 된다. 종교 세계에서 새로움의 추구는 신앙의 본질적 측면이다. 그런데 새로움의 추구는 그것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진정한 신앙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신앙은 신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은 믿음을 심화하고 풍요롭게 한다. 즉, 종교 간의 대화와 만남은 인간의 인격적 만남이고, 자기성찰을 통한 성숙이다. 그러므로 삶으로서의 신앙은 곧 성숙이다. 성숙으로서의 신앙은 변형과 혁명까지 함축한다.²²⁾

III. 한국사회의 다종교교육

1. 다종교교육의 방향

한국인은 다종교적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현대에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중시된다. 오늘의 한국인은 다종교사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역동적 신앙을 바탕으로 삶의 성찰과 탐구를 통한 의미와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다문화-다종교의 사회에서 종교혼합과 중층신앙은 불가피하다. 종교혼합으로 교단이 성장하고 중층신앙으로 개인이 성장한다. 혼합현상이 역동성과 창조성을 지니듯이 중층신앙도 역동성과 창조성을 특성으로 한다. 오늘의 다종교사회에서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편적 가치 그리고 인격과 영성의 성장을 지향하며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종교와 신앙으로 안내하는 길목에 종교교육이 있다.

게이브럴 모란(G. Moran)에 따르면 종교교육의 첫째 방향은 특정 종교집단의 태도·규범·의식을 신실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교육의 둘째 방향은 타종교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²³⁾ 전자인 특정 종교인이 되어가는 교육은 하나의 종교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후자인 타종교를 이해하는 교육은 이웃 종교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물론 양자는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인류는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중

22) 정재현, 「종교간 만남을 넘어 신앙의 성숙으로」, 『신학논단』 55(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09), 99-103, 105쪽.

23) 게이브럴 모란, 「열린사회의 종교교육」,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서울: 원화, 1992), 68-69, 71쪽.

심하고 이야기해오던 인류가 이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상대의 의견을 듣고 서로 배워 성숙하려는 것인데, 특히 종교인과 종교조직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역사주의, 의도성, 지식사회학, 언어적 한계, 해석학, 대화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다.²⁴⁾ 또한 인류는 닫힌 사회가 아니라 열린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열린사회’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서남북으로 쌓아놓은 벽을 헐어 던지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태도, 의식에 일대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후예들에게 ‘희망, 신뢰, 사랑’을 물려주려 하면 아무래도 종교인들이 이 비전을 솔선해 보여주는 길 밖에 없을 것 같다.²⁵⁾

열린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인이 앞장서서 장벽을 허물어버려야 하는데, 종교적 신념과 독선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종교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불·선의 전통과 기독교 및 신종교가 공존하는 한반도가 인류공동체를 위한 종교의 ‘거룩한 실험’을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²⁶⁾ 여기에 종교교육이 기여할 자리가 있다고 본다. 다종교사회의 폐쇄적 종단이 개방적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로는 종단의 종교교육을 제대로 하여 각자 자기 종교에 투철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기 종교와 이웃 종교의 공통분모를 체험적으로 파악하고 인간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를 살려가기 위해 더불어 번영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²⁷⁾ 이러한 종교교육은 종단의 종교교육을 포괄하면서 여러 종교를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다종교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종교학 교육과정을 제정할 때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하였다. 즉, 2015년에 제정한 종교학 교육과정에 따르면, 종교학 과목은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종교 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한다.²⁸⁾ 그 이전 2011년에 제정한 종교학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종교들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를 이

24) 레너드 스위들러, 「대화나 죽음이나: 독백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위의 책, 101-108쪽.

25) 이윤구, 「열린사회의 종교교육」, 위의 책, 86쪽.

26) 위의 글, 87-88쪽.

27) 같은 글, 88-89쪽.

28)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9]」, 58.

해함으로써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편한 생각에서 벗어나 종교를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세부 목표의 하나로 삼았었다.²⁹⁾ 교육청도 이러한 국가교육과정 기준에 근거하여 검인정 도서의 인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립학교의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실은 교과서의 다종교적 내용과 거리가 있고, 주요 종교에 대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종단과 중립학교가 단일사회의 개별 종교를 중심한 종교교육을 시행해왔다면 이제는 다종교사회의 다종교교육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은 종교의 초월적 성향을 살려가되 종단의 배타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종교교육이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이 되도록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종교 간 그리고 종교 내의 대화로 나아가야 한다.³⁰⁾ 그리하여 혼합현상과 중층신앙의 역동성과 창조성을 주목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나아가 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은 모든 삶의 차원과 연계되는 교육과정이고, 교육경험에 대한 질적 이해로 학생 스스로 가치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협동적·공동체적 활동을 지향하고,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종교교육이어야 한다.³¹⁾ 더불어 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은 이웃 종교에 대한 열린 자세와 태도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해 종교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지구윤리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³²⁾

2. 종교적 발달론에 따른 다종교교육의 가능성

교육이 학습자의 발달상황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듯이, 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도 학습자의 종교성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종교성 발달이론인 제임스 파울러(J. W. Fowler)의 신앙발달이론과 모란의 종교교육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다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해보자.

파울러는 신앙을 보편적 현상으로 일반화하고, 인간발달 차원에서 신앙발달을 논의하였으며, 신앙의 내용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신앙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였다.³³⁾ 그

29)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호 [별책 19]」, 89-90.

30) 이재일,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5(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215-216쪽.

31) 위의 글, 217쪽.

32) 안신, 「미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종교」, 『종교문화학보』 15(광주: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8), 165-166쪽.

33) 오상영, 「파울러의 구조주의적 신앙발달 모형의 한계와 수정」, 『기독교교육논총』 17(2008), 255-256, 261-263쪽.

는 신앙을 발달심리학적으로 인식하여 회심의 요소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의 이론은 사회과학적 조사연구에 기초하여 성립한 신앙발달모델이고 특정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³⁴⁾ 하지만 기독교적 신앙과 무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신앙의 단계에 대한 위계질서화의 문제도 지닌다.³⁵⁾ 그러므로 파울러의 신앙이해는 그리스도 신앙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는다. 모란은 에릭슨, 피아제, 콜버그, 길리건, 파울러 등의 발달론자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종교교육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종교적 관심과 교육적 관심을 종합함으로써 합리적 탐구와 공동체, 일상생활, 관조적 사유가 만나는 종교교육을 지향하였다. 그는 이를 에큐메니칼 교육의 분야로 명명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사용한 에큐메니칼 교육은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헌신이나 위임이라는 종교적 이슈에 관심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세계에 대하여 자유롭고도 지성적인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종교교육을 목표로 하였다.³⁶⁾ 모란도 파울러처럼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보편적 종교교육을 구상하여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제 파울러와 모란의 종교성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다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해보자. 파울러에 의하면, 적어도 30대 후반이 되어야 이웃 종교에 개방적인 ‘접속적 신앙’에 들어선다. 그래야 이웃 종교에 관심을 보이고 이웃 종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어린이는 ‘신화적-문자적 신앙’에 그치고 중학생일지라도 자기 종교에 관해 ‘종합적-관습적 신앙’을 할뿐이다.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자신의 관점을 지니는 ‘개별적 신앙’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기까지는 이웃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0대 후반이 되어 ‘접속적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야 타자의 입장(전통, 견해, 신화, 규범)에 개방적이며 비판적 타협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점에 따른 진리의 모순을 알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견해도 포용하려고 한다.³⁷⁾ 이 단계에서 신앙인은 이웃 종교에 마음을 열고 이웃 종교의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 기존 종교 신앙의 경험에 새로운 종교 신앙의 경험을 추가하게 된다.

모란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나의 종교를 수용하는 단계’(Acquiring a Religion)에 있다. 특정 종교와 관계되고 배타적인 종교성을 지닌다. 이 시기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신념을 수용하거나 자기 신념의 한계에 눈을 뜨고 반종교적이고 철

34) 오재은, 「Fowler의 신앙발달단계 이론의 문화적 타당성 탐색」, 『상담학연구』 10-2(2009), 834쪽.

35) 강문규, 「James Fowler의 신앙발달 단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18(2009), 61-62, 64-65쪽.

36) 김청봉, 「인간경험과 그리스도교 전통의 통합을 위한 종교교육 연구 - 가브리엘 모란의 종교교육이론을 중심으로」(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32-133쪽.

37)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이재은 역, 『신앙의 단계들』(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46-265쪽.

학적이기도 한 의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특정 종교인’의 단계에 들어선다.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기독교인 또는 불교인(Religiously Christian or Buddhist)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성인기에 종교적으로 성숙할 때 가능하다. 합리와 비합리, 의존과 독립의 긴장과 균형을 유지한다. 궁극적 실재나 진리를 자기 종교의 소유물로 한정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웃종교의 가치도 인정한다.³⁸⁾

이러한 발달론적 관점에서 모란이 제시하는 다종교교육을 살펴보자. 그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진정성을 확신하고 체험하며 합리화하는 ‘특정 종교적 교육’의 단계를 지나, ‘종교적으로 특정 종교적 교육’의 단계에 들어서야 진정한 다종교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단계에는 관점의 역전으로 청소년기의 합리성에 아동기의 신비와 경이로움이 보완된 형태를 더 풍부하고 성숙한 것으로 수용한다. 이 단계에는 신학을 포함한 어떤 대답도 비절대화하고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초월하며 진리에 대한 시(詩)적 접근을 하고 인생을 정의와 평화가 자리 잡고 있는 중심으로의 여정으로 인식하게 된다.³⁹⁾ 이러한 모란의 이론은 종교와 교육의 상호보완적 조화를 지향하면서 오늘의 다종교 사회에서 성숙하고 발달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다종교교육이야말로 성숙한 종교교육임을 역설한다.

다종교교육이란 하나 이상의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다. 종교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현실 너머의 비일상적이고 추상적인 의미 영역에 관계된다. 추상적 사고력이 약한 초등학생은 자기 종교의 외형을 보고 경험할 뿐이지 그 본질을 맛보거나 이해하기는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나의 종교를 수용하고 이웃 종교에 무관심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웃 종교를 소개하고 다종교적 상황을 안내하는 교육은 필요하다.

파울러와 모란에 따르면 진정한 다종교교육은 학습자가 이웃 종교에 관심을 보이는 성인의 단계에 들어서야 가능하다. 물론 청소년에 대한 다종교교육은 이웃 종교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교적 관용성을 높이고 배타성을 낮추는 다종교 교육은 학습자의 종교적 발달 과정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교육은 종교단체가 주도하는 것과 공립학교 같은 비종교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단의 종교교육은 종교에 대한 주관적 이해의 바탕에서 실시되기 쉬우나, 학교의 종교교육은 종교에 관한 객관적 이해 교육과 종교문화교육이다. 한국 사회가 다종교사회임을 감안할 때, 학교의 종교교육은 물론 종단의 종교교육도 다종교교육의 장을 열어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38) Gabriel Moran, *Religious Education Development*, 사미자 역, 『종교교육발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199-231쪽.

39) 위의 책, 256-261, 273-283쪽.

IV. 결론

한국사회에 태어나 자라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기억하고 모시며 살게 된다. 가족 중심한 인간관계인 유교적 윤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비기독교인일지라도 유아기에는 기독교 교회 부설 유치원에 다닐 가능성이 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보거나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는 교회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불교인이 아니어도 마을에서 떨어져있는 절에 소풍을 가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는 가로수에 달려있는 연등을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기독교계 중립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성경 공부와 예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성인이 되어 등산을 하면서 산사에서 들러 고요함을 맛볼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다종교적 경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류의 문명은 교류를 넘어 융합과 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생명의 역사에서도 서로 섞이면서 진화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종교계는 자기 종단의 순수성을 주장한다. 단일종교와 단일신앙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단일을 순수로, 중층을 불순으로 단순화하는 시각이 있다. 물론 유일신 신앙에서는 하나의 전통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하나만을 보기가 쉽고 중층을 볼 여유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의 실상은 혼합성이다. 혼합현상이 복수 종교의 요소들이 하나의 종교 안에서 뒤섞이는 현상을 지칭한다면, 중층신앙은 개인이 복수 종교의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 다문화와 다종교의 사회에서 순혈주의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창조는 대부분 이질적인 요소가 섞이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정체성을 허물어트리거나 다른 정체성과 섞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창조는 거의 예외 없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이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⁴⁰⁾ 우리는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힘겨워 한다. 나와 다른 정체성과 만나고 섞여보아야 발전한다. 오늘의 시대는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일치가 있고, 일치된 가운데에도 다양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40) 임범, 〈야! 한국사회: 섞이는 즐거움〉, 《한겨레》, 2019년 2월 18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2622.html#csidx6bca4df285b02a292af52aaf592ab6f>
(2019. 10. 9).

참고문헌

- 강문규, 「James Fowler의 신앙발달 단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18 (2009).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호 [별책 19]」.
-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9]」.
- 김대열, 「종교문화와 그 다원성 - 또 하나의 시각」, 『종교문화비평』 24(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3).
- 김용표,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불교적 Cosmopolitanism의 의미」, 『평화와 종교』 6 (아산: 한국평화종교학회, 2018).
- 김창환, 「신화 텍스트와 해석의 '전유'의 문제」, 『신화와 역사』,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3.
- 김청봉, 「인간경험과 그리스도교 전통의 통합을 위한 종교교육 연구 - 가브리엘 모란의 종교교육이론을 중심으로」(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스위들러, 레너드, 「대화나 죽음이나: 독백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 서울: 원화, 1992.
- 모란, 게이브릴, 「열린사회의 종교교육」,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 서울: 원화, 1992.
- 방원일, 「혼합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종교문화의 만남을 서술하기 위하여」, 『종교문화비평』 33 (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8).
- Moran, Gabriel, *Religious Education Development*, 사미자 역, 『종교교육발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 안신, 「미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종교」, 『종교문화학보』 15 (광주: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8).
- 안신, 「세계시민사회 실현을 위한 종교간 대화와 협력」, 『평화와 종교』 6 (아산: 한국평화종교학회, 2018).
-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2012.
- 오상영, 「파울러의 구조주의적 신앙발달 모형의 한계와 수정」, 『기독교교육논총』 17, 2008.
- 오제은, 「Fowler의 신앙발달단계 이론의 문화적 타당성 탐색」, 『상담학 연구』 10-2, 2009.
-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 이승욱, 〈이승욱의 증상과 정상: 나를 위한 사마리아인〉, 《한겨레》, 2019년 2월 18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2481.html>
- 이윤구, 「열린사회의 종교교육」,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 서울: 원화, 1992.
- 임범, 〈야! 한국사회: 섞이는 즐거움〉, 《한겨레》, 2019년 2월 18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2622.html#csidx6bca4df285b02a292af52aaf592ab6f>
- Fowler, James. W.,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이재은 역, 『신앙의 단계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이재일,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5(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 장정태, 〈한국불교(증산신앙) 종단의 종교 혼합현상: ①종교적 혼합의 의미와 역사〉, 《매일종교신문》, 2018년 11월 21일.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12975 2019).
- 정재현, 「종교간 만남을 넘어 신앙의 성숙으로」, 『신학논단』 55(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09).
- 정진홍, 「한국의 종교와 한국인」, 『한국문화연구』 1(서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1).
-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反혼합주의」, 『종교연구』 47(성남: 한국종교학회, 2007).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 황필호, 『종교변호학·종교학·종교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4.

원고접수일: 2019년 11월 15일 심사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연구자 소개 : 이재일

① 전공: 교육학, 신학 / 소속과 직위: 선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인성교육, 개화기의 한국교육

③ 주요논저: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④ E-mail: leejaeil21@hanmail.net

Abstract

**Multi-Faith and the Possibility of
Multi-Religious Education in Korea**

Lee, Jaeil
Sunmoo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multi-religious education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Koreans who have multi-faith in a multi-religious society.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 situation of religious groups that emphasize one religion and faith, and the condition of believers affected by more than one religion. Korea is a multi-religious society and Koreans are influenced by multiple religions. If you look at the religious culture of Korea, you can find the characteristics of pluralism, multi-religious layers and diversity. In addition, you can find syncretism by religious encounters. Koreans have multiple religious experiences in religiously pluralistic culture. The multi-faith of Koreans is represented by the spiritual abundance and creative application of this pluralistic culture. However, the multi-faith of Koreans is floating between pluralism and exclusivity. We need a religious education that approves and accepts a pluralistic culture to solve this problem. I consider this religious education as multi-religious education. It should guide religious people to overcome religious exclusivity and selfishness and to be open to other religions. According to J. W. Fowler and G. Moran, true multi-religious education is possible at the level of adulthood where learners are interested in other religions.

Key words: Multi-Faith, Plurality, Syncretism, Multi-Religious Society, Multi-Religious Education